

【논문】

니체의 위대한 정치와 하나의 유럽

정지훈

【주제분류】 정치철학, 근대철학

【주요어】 니체, 위대한 정치, 하나의 유럽, 지배구조물

【요약문】 본 논문의 목표는 니체의 위대한 정치에서 ‘하나의 유럽’이 중요한 하나의 축을 형성하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저 표현은 니체의 위대한 정치에 대한 구상이 당대의 구체적인 현실적 문맥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하지만 그동안 ‘하나의 유럽’은 그 중요성에 비해서 다소 덜 주목받았으며, 그래서 위대한 정치는 자주 현실적 문맥 없이 철학적이고 이념적인 지평에서만 주로 설명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본 논문은 출판된 저서뿐만 아니라 유고와 편지에 흩어져 있는 니체의 언급들을 면밀히 추적하여 위대한 정치와 ‘하나의 유럽’의 깊은 연관을 밝히려 했다. 이를 통해 본고가 보일 것은 먼저 니체가 ‘위대한 정치’라는 말로써 새로운 지배구조물을 세우려고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지배구조물이 세워질 터 혹은 위대한 정치가 수행될 지평이 바로 ‘하나의 유럽’이며, 그것은 단순히 공간이 아니라 무엇보다 문화적 의미에서의 지평이라는 것이다.

I. 들어가며

니체의 위대한 정치(grosse Politik)에서 ‘하나의 유럽’이라는 말은 중요한 하나의 축을 형성한다. 이는 니체가 그것을 분명히 강조하여 말하기 때문이며, 그리하여 그 하나의 축을 빼버린다면 위대한 정치의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하나의 유럽’이라는 말은 그 중요성에 비해서 다소 덜 주목받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저 낱말 자체에서 풍기는 어떤 뉘앙스가 연구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니체가 말하는 ‘위대한 정치’에는 “정치적 실체”라고 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말하기도 할 정도로¹⁾ 니체의 서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분명하지도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사정은 또한 여기서 ‘정치’라는 낱말에 대한 이해를 흐릿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위대한 정치에서 ‘정치’라는 낱말을 실제적인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것이 정치 보다는 정신적인 측면에서 모든 가치의 전도라는 니체의 투쟁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하기도 하며,²⁾ 또 한편으로는, 오늘날 ‘삶의 정치’, ‘몸의 정치’와 같은 말들에서 보는 것과 같이 보다 넓은 윤리적 지평 속에서 전유된 ‘정치’의 확장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³⁾ 그 어느 쪽이든 ‘정치’라는 말을 굳이 붙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위대한 정치는 삶의 윤리적 지평에서 고려된다. 그러나 위대한 정치가 어떠한 정치적 전망을 보여준다고 이해하는 입장⁴⁾에서도 정치라는 말이 때로 모호하게 쓰이기는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자주 구체적인 현실 문맥에서 떠나서 논의되기도 하는 것이다.

1) Thomas Brobjer(2008) 216쪽.

2) 정낙림(2007), Thomas Brobjer(2008)

3) 김정현(2006), 전성택(2012)

4) 대개 큰 틀에서 고귀한 개인의 양성을 위한 일종의 플라톤적 기획으로 해석하며(Henning Ottmann 1999; Alex McIntyre 1997; Fredrick Appel 1999), 그 가운데서 주로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주목하거나(Herman Siemens 2008; 이상엽 2008), 주로 귀족주의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며(Keith Ansell-Pearson 1994; Lee Spinks 2003; 백승영 2011), 이러한 지배의 문제보다는 자기지배적인 개인의 ‘주권성’의 보장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임건태 2010), 거기서 드러난 탈민족적인 세계관에 주목하기도 하며(진은영 2008), 또는 다소 나아가 ‘아곤의 정치’로 해석하기도 한다(고병권 2001; 황훈 2006).

그러나 아래에서 보겠지만 우리가 위대한 정치와 관련된 니체의 텍스트를 면밀히 검토해보는다면 ‘유럽’이라는 말을 빼고는 그에 대한 상을 그리기가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를 탐구함으로써 우리는 위대한 정치를 당대의 보다 구체적인 문맥 속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그에 대한 텍스트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⁵⁾ 그리하여 본 논문은 아래에서 먼저 위대한 정치에서 니체가 ‘정치’라는 말로 무엇을 의미하려 했는지 분명히 하고, 그 후 개념 검토가 부족하다는 인식 하에, 위대한 정치에 관한 텍스트를 면밀히 추적하여 그 과정에서 ‘하나의 유럽’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럼으로써 이 논문이 밝힐 것은 그 때의 유럽이 한편으로는 ‘위대한 정치’가 수행될 구체적 지평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단순히 공간적 장소라기보다 문화적 의미에서의 유럽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II. 위대한 정치와 지배구조물의 이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는 논의를 분명히 하기 위해 먼저 ‘위대한 정치’라는 구상 속에서 니체가 무엇을 지향하고 염두에 두고 있었는지를 분명히 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니체가 ‘정치’를 말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제시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혀야 하는 것이다. 그에 대한 단서로서, 니체는 위대한 정치를 모색하는 언급들이 등장하고 있는 1885년에서 1886년 사이의 유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제부터는 훨씬 더 포괄적인 지배-구조물(Herrschafts-Gebilde)을 위한 유리한 전제조건이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것이 아직은 없었다. [...] 가장 엄격한 자기-입법 위에 건설된 새롭고 엄청난 귀족 정치(Aristokratie). 여

5) 위대한 정치와 관련한 국내 연구 가운데 ‘하나의 유럽’에 주의를 둔 연구는 김진석(2007), 진은영(2008)이 있는데, 진은영(2008)의 경우에는 거기서 드러난 탈민족적인 세계관에 주목하는 까닭에 ‘유럽’이 니체에게서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더 탐구해 들어가지 않는다. 김진석의 논문은 그의 단행본 김진석(2009)에 조금 달리 편집되어 쓰였다. 아래에서 김진석을 언급할 때에는 이 책을 이용할 것이다.

기에서는 철학적 폭력-인간(Gewaltmenschen)의 의지와 예술가-전제적 지배자(Künstler-Tyrannen)의 의지가 수천 년 지속된다. [...] 지상의 운명을 인수하기 위하여, ‘인간들에게서’ 예술가로서의 자신을 형성하기 위하여, 민주주의적 유럽을 가장 유연하고 움직이기 쉬운 도구들로서 사용하는 보다 높은 종류의 인간. 말하자면, 정치에 관해 다르게 생각하게 될 시대가 온다.⁶⁾

정치에 관해 다르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하기도 하고 당대에 점점 지배적으로 되어갔던 정치, 곧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식의 정치가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니체가 정치를 말하면서 무엇보다 지배구조물(Herrschaftsgebilde)⁷⁾을 염두에 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옛 사회의 모든 권력구조물(Machtgebilde)은 공중에서 폭발된다. [...] 비로소 나로부터 지상에 위대한 정치가 펼쳐진다”⁸⁾는 니체의 유명한 구절과도 상응한다. 위 유고에서 그는 새롭게 세워야 할 지배구조물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주인-종족(Herren-Rasse), 곧 미래의 ‘지상의 주인’을 훈육해내는 것을 과제로 설정한 국제적 종족-동맹(Geschlechts-Verbänden)”이 중요함을 말하는데, 이를 통해 고귀한 인간들의 의지가 행사되고 오래 지속될 지배구조물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니체가 당대의 사회이론이나 정치에 비판적이고 거리를 뒀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니체는 1882년 8월에 신문 편집자인 쿠르티(Theodor Curti)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이 “정치적-사회적 사상가의 **진지한** 관

6) KSA 12 2[57]; 니체의 저술은 Giorgio Colli와 Mazzino Montinari가 편집한 다음의 판본을 사용한다. Friedrich Nietzsche, *Sämtliche Werke : Kritische Studienausgabe in 15 Bänden* (=KSA), München : Deutscher Taschenbuch Verlag ; Berlin ; New York : Walter de Gruyter, 1999. 인용시 저서의 약어와 절 번호를 표기하거나(예: M 15 = 아침놀 15절; 약어는 통상적인 독일어 약어를 사용하며, 자세한 약어 표현은 아래 참고문헌 참조), 유고의 경우 권 번호와 편집된 절 번호를 표기한다(예: KSA 13 25[1] = KSA 13권 25[1]번 노트). 번역은 한글 번역본을 존중하되, 원문에 맞추어 수정하였다. 다른 언급이 없는 경우 인용문의 강조는 니체 자신의 것이다.

7) 이따금씩 등장하는 이 용어는 한글 번역본에서 지배구조, 지배체제, 지배형태, 지배조직 등 여러 말로 번역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일관되게 ‘지배구조물’로 번역할 것이다.

8) EH Schicksal 1

심을 일깨울 수 있었다는 것은 내게 완전히 놀라운 일이다. [...] 나는 결코 그런 것들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⁹⁾고 적고 있다. 분명 그러할 수 있을 것이다. 니체는 자신이 비판하는 “허위로서의 현대 이념들” 가운데 하나로서 “사회학”을 적고 있는바,¹⁰⁾ 그런 한에서 그에게 당시 정치 혹은 사회 이론은 자신이 참여하거나 말을 보탬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에 따르면, “우리의 모든 정치 이론과 국가-헌법은 [...] 쇠퇴의 필연적 귀결들이다. [...] 하강하는 삶, 조직하는 힘의 감소, 즉 분리시키고 간격을 벌리며 아래와 위로 질서를 주는 힘의 감소가 오늘날의 사회학에서는 이상(Ideal)으로 공식화된다. 우리의 사회학자들은 데카당이다.”¹¹⁾ 결국 당시 사회 이론은 그리스도교적-허무주의적 가치를 자신의 척도로 삼고 무리 본능만을 자신의 판단 규범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¹²⁾ 그것은 평등에 열광하고 대중의 행복을 진보로 믿고 있었으며 삶의 고양이라 아니라 서로에게 친절한 인락함을 자신의 도덕으로 삼고 있었다. 그리하여 니체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새로운 귀족 정치 [...]

사회학 대신에 지배구조물의 이론¹³⁾

결국 니체가 기존의 정치와는 다른 새로운 ‘위대한 정치’를 확립하고자

9) KSB 6 241. 니체의 편지는 Giorgio Colli와 Mazzino Montinari가 편집한 다음 판본을 사용한다. Friedrich Nietzsche, *Sämtliche Briefe : Kritische Studienausgabe in 8 Bänden* (=KSB), München : Deutscher Taschenbuch Verlag ; Berlin ; New York : Walter de Gruyter, 2003. 인용시 권 번호와 쪽수를 표기한다. ; 한편 Thomas Brobjer(2008)는 니체의 이와 같은 발언들을 주목하여 니체를 반정치적 사상가로 이해한다.

10) KSA 13 16[82]

11) GD, KSA 6 138-9

12) KSA 13 14[6], 14[40] 참조.

13) KSA 12 5[61] “Theorie der **Herrschaftsgebilde** statt: **Sociologie**”

지배구조물의 이론이라는 말은 그 후에도 한 번씩 나오는데, 1887년 가을의 한 유고에서는 “계획”이라는 표제 아래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 “‘사회학’ 대신에 **지배구조물에 대한 교설**”(An Stelle der „Sociologie“ eine Lehre von den Herrschaftsgebilden)”(KSA 12 9[8])

할 때, 그것은 새로운 지배구조물을 건축하려는 것이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이 지배구조물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해명해야 할 두 가지 측면이 떠오르는데, 그 중 하나가 그 지배구조물이 세워질 터 혹은 외적인 지평이고, 다른 하나가 그 지배의 내용 혹은 원리이다. 그리고 본고는 단적으로 말해 전자는 “하나의 유럽”이라는 말로, 후자는 “위계질서(Rangordnung)”¹⁴⁾라는 말로 집약되며, 이것이 위대한 정치의 중요한 두 축이라고 파악한다. 그리고 이 전자의 축, 곧 ‘하나의 유럽’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아래에서 수행될 작업이다.

Ⅲ. ‘위대한 정치’ 개념 사용의 두 가지 흐름

출판된 저작에서 ‘grosse Politik’이라는 말은 10개의 절에서 등장하며,¹⁵⁾ 이 가운데 연구자들이 주로 유의미하게 인용하는 것은 대개 두 구절(JGB 208; EH Schicksal 1)이다.¹⁶⁾ 그러나 이 두 구절 자체로만 본다면 위대한 정치가 무엇인지 쉽게 파악되지 않으며, 이런 까닭에 저 개념을 전체로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생긴다. 기본적으로 ‘grosse Politik’이라는 용어는 당대 유럽의 국가 간 대외 정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알렉스 매킨타이어는 그 말이 비스마르크의 용어이며 이것을 니체가 아이러니한 의도에서 사용

14) KSB 8 502. “우리가 승리한다면, 지상의 통치(Erdregierung)는 우리의 손 안에 있게 됩니다. 세계평화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인종과 국가와 계층의 불합리한 경계를 극복했습니다: 오직 인간과 인간 사이의 위계질서가, 그것도 위계질서의 엄청나게 긴 사다리가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서 당신은 세계역사의 첫 번째 기록물을 보게 될 겁니다: 바로 위대한 정치를.”

15) MA I 481; M 189; JGB 208, 241, 254; GM I 8; GD Moral 3, GD Deutsche 3, 4; EH Schicksal 1. 한글 번역본에서는 서로 다른 번역어로 이 구절들이 잘 드러나지는 않는다. 한편 Peter Bergmann(1987)은 영미권에서도 ‘grosse Politik’이라는 개념이 다양하고 일관되지 못하게 번역됨으로써, 그에 대한 니체의 개념 사용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한다(161쪽 아래).

16) 위대한 정치와 관련한 국내 논문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김진석(2009)이 『선악의 저편』 이전에 나오는 두 구절(MA I 481; M 189)과 그 후의 한 구절(GD Moral 3)을 함께 고려하며 니체의 태도 변화를 지적할 뿐이다.

한 것이라고 해석한다.¹⁷⁾ 그러나 그것을 비스마르크의 직접적인 용어라 할 수는 없는데, 물론 니체가 자주 비스마르크의 정치를 염두에 두며 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비스마르크가 그것을 자신의 고유한 정치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¹⁸⁾ 오히려 이것은 당대 유럽에서, 대내적인 문제를 다루는 정치보다 더 고차적인 것으로 여겨지던 대외 정치 혹은 국제 정치를 일컬었던 용어로서, 특히 유럽과 세계의 권력 충돌과 같은 문제를 다루는 대외 정치가 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인 정치 형태라는, 당대 유럽의 신념에 뿌리를 둔 용어이다.¹⁹⁾ 그리하여 그것은 국가주의적인 정치, 혹은 한 국가가 소위 강대국이 되기 위해 대외적으로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활동을 지시한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니체는 그 동일한 용어를 사용한다. 다시 말해 위와 같은 당대의 소위 위대한 정치에 거리를 두고 비판하면서도, 그 자신 같은 용어(*grosse Politik*)를 사용하는 것이다. 아직 자신이 생각하는 위대한 정치를 구상하기 전으로 보이는 초기에 그는 당대의 상황을 바라보며 “막 위대한 정치를 추진하고 가장 강한 국가들 사이에서 결정적인 목소리를 확보하기 시작하는” 나라의 가장 큰 손실은 “전쟁경비의 지출”이 아니라 거기에 동원되어야 하는 많은 탁월한 재능들의 희생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비판하고,²⁰⁾ 때로는 다소 중립적으로 관찰하면서 위대한 정치를 추진하게 되는 데에는 이익이나 허영심도 작용하겠지만, 무엇보다 힘의 감정(*Machtgefühl*)에 대한 욕구가 그것을 추동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²¹⁾ 하지만 이후 『선악

17) Alex McIntyre(1997) 10쪽.

18) 오히려 당대 비스마르크의 정치는 *Realpolitik*이라 불렀고 니체 자신도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FW 357).

19) Peter Bergmann(1987) 162쪽. “1920년대의 독일 역사학자들은 전쟁 전의 외교 문서들을 모아 편집한 책에 다음과 같은 제목을 붙였다. *Die Grosse Politik der Europäischen Kabinette, 1871-1914.*”; 니체 또한 당시 국외 정치가 국내 정치를 압도하고 있다고 보았다(MA II ii 292).

20) MA I 481

21) M 189. “**위대한 정치에 대해.** - 개인들과 국민들이 얻게 될 이익과 그들의 허영심이 **위대한 정치**에 아무리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몰아대는 가장 강력한 물은 **힘의 감정에 대한 욕구**다. 이러한 욕구는 군주나 권력자들뿐 아니라 그것에 못지않게 민중의 낮은 계층에서도 마르지 않는 샘처럼 때때로 솟아

의 저편』 208절에서는 처음으로 위대한 정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지시하는 언급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진석은 이 용어들이 동일한 것을 지시한다고 보면서, 초기에는 니체가 위대한 정치를 “긍정하면서도, 동시에 그 때문에 희생되는 개인들의 꿈과 희망을 차분하게 서술”하지만, 이후 서양 철학사에 대한 비판 작업과 맞물려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이 강해지면서 그에 대한 “열정이나 걱정”이 바뀌었고, 그리하여 유럽에 만연한 의지의 약화와 병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배를 긍정하는 위대한 정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나아간다고 해석한다.²²⁾

그러나 니체는 당대에 이뤄지는 소위 위대한 정치를 처음부터 끝까지 결코 긍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만일 ‘위대한 정치’라는 말이 동일한 사태를 지칭하는 것이며 다만 그에 대한 니체의 태도가 변화한 것이라면, 적어도 그렇게 변한 후에는 그에 대한 평가가 일정해야 하지만, 그 후에도 여전히 니체는 위대한 정치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바, 그렇게 후기까지 이어지는 비판은 “위대한 정치가 진정으로 위대한 모든 것에 대한 **진지함**을 집어삼켜버렸다”²³⁾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그리하여 본고는 ‘위대한 정치’라는 말의 사용에는 두 개의 선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구분해야만 한다고 본다. 하나는 당대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소위 위대한 정치로서 그에 대해 니체가 비판적이거나 혹은 거리를 두고 서술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니체 자신이 “지상의 지배”(Erd-Herrschaft)²⁴⁾ 혹은 “지상의 통치”(Erdregierung)²⁵⁾로 부르기도 하며 긍정적이고 적극적으

친다.” 김정현(2006)은 위대한 정치가 “인간의 자기 극복, 몸의 자연적 건강의 회복, 힘 있고 생명력 있는 자기의 형성을 촉진하는 새로운 문명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며, 그 근거로서 각주에 유고의 한 단편과 이 『아침놀』 189절을 포함시키고 있는 데, (316쪽) 하지만 이 구절에서 어떻게 그러한 것을 읽어낼 수 있는지 분명히 알 수는 없다. 한편 카우프만은 여기서 나온 “Grosse Politik”을 국가의 권력 정치를 의미하는 “power politics”로 번역한다. Walter Kaufmann(1974) 191쪽.

22) 김진석(2009) 53-60쪽. Peter Bergmann(1987)은 니체가 당대 정치를 보면서 처음에는 거리를 두다가 1884년 즈음 이 용어를 자기 방식으로 내재화(internalize)한다고 해석한다(6쪽, 162쪽 아래).

23) KSA 13 19[1]; GD Deutsche 4.

24) JGB 208. “틀림없이 다음 세기는 지상의 지배를 위한 투쟁을— 즉 위대한 정치를 향한 강제를 가져온다.”

로 요구하는 것으로서의 위대한 정치이다.

IV. 『선악의 저편』 208절

앞서 언급했듯이, 처음으로 니체가 ‘위대한 정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말하는 곳은 『선악의 저편』 208절이다. 그러나 자주 마지막 구절만 인용되기도 하는바, 우리는 이를 전체적으로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니체는 “신경쇠약이나 병약함이라 불리는 어떤 복잡한 생리학적 상태의 가장 정신적인 표현”인 회의(Skepsis)가 유럽에 만연해 있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이는 서로 다른 기준이나 가치를 가지면서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종족이나 신분이 갑자기 뒤섞이게 될 때 일어나는 것인데, 그러한 출신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가장 깊이 병들고 퇴화되는 것은 의지”이며, 그래서 그들은 “결의에 찬 독립심이나, 의지에 깃들여 있는 용감한 쾌감”을 상실하게 된다. 니체는 이러한 “회의”로부터 오는 “의지의 마비”를 유럽의 병으로 진단한 후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의욕하는 힘, 더구나 하나의 의지를 오랫동안 의욕하는 힘이 [...] 가장 강하고 놀랄 만하게 된 것은, 말하자면 유럽이 아시아로 역류하는 저 거대한 중간 지역인 러시아에서였다. 거기에서는 의욕하는 힘이 오랫동안 비축되고 저장되었으며, 의지가 [...] 위협적인 방식으로 작동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 [...] 내가 뜻하는 것은 러시아의 위협이 그렇게 증대된다면, 유럽이 그와 같은 정도로 위협적이 되고자 결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즉 하나의 의지를 획득하려는 결의를, 유럽을 지배하는 새로운 계급(Kaste)이라는 수단을 통해 수천 년에 걸쳐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길고 무서운 자기 소유의 의지를 획득하려는 결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침내 오랫동안 늘어진 유럽의 소국분립(Kleinstaaterei)이라는 회극이, 또한 그 왕정적이거나 민주주의적인 의지 분열(Vielwollerei)이 종결될 것이다. 작은 정치(kleine Politik)를 위한 시대는 지나갔다. 틀림없이 다음 세기는 지상의 지배(Erd-Herrschaft)를 위한 투쟁을 - 즉 위대한 정치를 향한 강제를 가져온다.

25) KSA 11 35[47]. “위대한 정치, 곧 임박해있는 지상의 통치”

연구자에 따라서는 대개 여기서의 마지막 대목만을 인용하기도 하며, 그에 대한 해석의 자유를 누리기도 한다. 그리고 때로는 저 마지막 구절이 “대지와 생명을 찾기 위한 위대한 정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면서, ‘생명의 정치’, ‘몸의 정치’, ‘상생의 정치’ 등의 전망을 제시하기도 한다.²⁶⁾ 그러나 여기서 글을 전체로서 볼 때,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먼저 받는 인상은 어떤 무서움이다. 위대한 정치는 ‘지상의 지배’와 관련되는데, 이 용어 자체가 주는 위압감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니체는 저 거대한 러시아의 위협을 언급하고서 단호하게 그에 맞서 하나의 의지를 의욕하는 유럽을 요구하며, 유럽을 지배하는 새로운 계급이 수천 년에 걸쳐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의지를 획득하고 지상을 지배하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이런 말은 연구자들을 당혹케 하며, 그래서 위대한 정치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려 할 때, 이 구절을 아예 언급하지 않기도 한다.²⁷⁾

그러나 이 구절을 무시할 수 없는 까닭은, 니체가 여기서 ‘위대한 정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이 보다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니체의 편지에서인데, 『선악의 저편』의 바탕이 될 글들을 쓰고 있었을 1884년 4월 말에 니체는 오버베크(Franz Overbeck)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한다. “나의 목표와 과제는 다른 누구의 것보다도 포괄적이다. 그리고 **내가** 위대한 정치라고 부르는 것은 [...] 현재의 일들에 대한 **좋은** 입각점(Standort)과 조감도를 제공할 것이다.”²⁸⁾ 편지에는 “내가”가 강조되어있는데, 이즈음부터 니체는 당대의 흐름과 구분되는, 자신이 생각하는 ‘위대한 정치’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기 시

26) 김정현(2006) 358쪽. “인간과 자연이 하나의 우주적 생명임을 깨닫는 생명의 정치, 이성과 감성이 화해하는 몸의 정치, 지식과 삶이 화해하는 실천적 자각의 지혜의 정치, 남성과 여성이 화해하는 사랑의 정치, 인간이 타자(성)를 다양한 시각으로 승인하는 상생의 정치”라는 전망이 ‘위대한 정치’라는 말을 통해 제시되지만, 이들을 굳이 ‘위대한 정치’라는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다른 도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7) 최근의 예로는, 백승영(2011)이 그러하며, Alex McIntyre(1997), 이상엽(2008) 등 또한 이를 다루지 않는다. 이 구절을 잘 다루지 않거나 혹은 ‘지상의 지배’에 대해 말하기를 꺼리는 것은 루카치가 니체의 이러한 면을 과도하게 해석하여 제국주의의 선취로 이해한 데 대한 반향일 수도 있을 것이다. Georg Lukács(1983) 참조.

28) KSB 6 497

작한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구절을 외면할 수는 없다.

이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이 구절을 받아들여, 니체는 “약한 유럽보다는 강한 유럽을 선호”하였고 “비록 제국주의라는 이름을 사용하거나 옹호하지는 않았지만 유럽이 의지의 약화에 빠지는 것보다는 지구의 지배를 놓고 벌어지는 한판 싸움을 준비하는 편이 낫다고 보았다”²⁹⁾고 이해하는 김진석의 해석이 오히려 정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김진석은 위대한 정치에 대한 니체의 태도 변화를 언급하면서 당대 벌어지던 정치에서 니체가 거리를 두려고 했던 것을 충분히 염두에 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 거리를 함께 고려하여, 이 구절에 제시된 단서, 즉 유럽이 소국분립을 극복하고 하나의 의지를 획득하는 ‘하나의 유럽’이라는 지평과 거기서 새로운 지배 계급이 수행할 ‘지상의 지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해명해야만 한다.³⁰⁾

V. 위대한 정치와 유럽의 지배

먼저 니체가 당대의 소위 위대한 정치와 거리를 두고 자신의 위대한 정치를 내세울 때, 그것은 어떠한 ‘지배’의 문제로서 등장한다. 그것은 곧 드러나는데, 앞서 인용한 『선악의 저편』 208절 이후 같은 책 241절에서 ‘위대한 정치’가 다시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니체는 비록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비스마르크를 염두에 두는 것처럼 보이는 두 명의 늙은 ‘애국자’가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된다. 그때 한 대화자는 “지금은 대중의 시대”이며 대중들은 “나라와 권력을 거대하게 키운 정치가를 ‘위대하다’고 부른다”고 하며, 그렇다면 어느 정치가가 국민들을 소위 “‘위대한 정치’를 수행해야 하는 상태로 몰아넣었”고, 그래서 그들을 “‘국가주의적’으로 만든다”고 가정한다면, 그 정치가를 위대하다고 해야 할지 되묻는다. 이에 상대방은 그 정치가

29) 김진석(2009) 65쪽.

30) 이 모두를 하기에는 다른 지면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본 논문은 ‘유럽’에 집중할 것이다.

를 위대하다고 하고, 다시 그 대화자는 그가 강하지만 위대하지는 않다고 소리치는데, 이렇게 두 노인이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며 니체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나는 다행히도 멀리 떨어져 어떻게 곧 강한 자에 대해 더욱 강한 자가 주인이 될 것인지, 또한 한 민족(Volk)의 정신적 천박화(Verflachung)에 대한 보상은 다른 민족의 심화(Vertiefung)를 통해 이뤄진다는 것을 생각했다.

여기서 니체는 (당대의) ‘위대한 정치’를 두고 벌이는 대화를 듣지만, 그로부터 떨어져 거리를 둔 채 다른 것을 생각한다. 즉 어떻게 더 강한 자가 지배자가 될 것인지를 생각하고, 또한 국가적 정치에 관심을 쏟으면서 사람들의 정신은 평평하고 천박하게 되지만(Verflachung), 동시에 그러한 상황에서 더 강해지고 깊어진(Vertiefung) 정신이 나오므로써 균형이 맞추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242절에서는 유럽의 민주주의 운동을 통해 인간이 평준화되고 평범화됨으로써 “유용하고 근면하며 다양하게 써먹을 수 있고 재주 있는 무리 동물적 인간이 형성”되는데, 이는 “예외적 인간을 발생시키는” 조건이 된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유럽의 민주화는 한편으로는 “그날그날의 빵이 필요하듯 주인과 명령하는 자를 필요로 하는” “노예제를 위해 준비된 인간 유형”을 산출해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별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 강한 인간이 더 강해지고 풍부해”짐으로써 “전제적 지배자”를 길러내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민주화가 산출하는 두 개의 인간 유형의 대비는 Verflachung과 Vertiefung을 대비시키는 바로 앞의 절과 대칭을 이루는데, 이로써 니체는 ‘위대한 정치’라는 말로 다른 것을 지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니체는 새로운 지배를 생각한다. 이 후에도 그는 자신이 비판하는 “위대한 정치”가 독일을 점점 더 얇고 천박한 땅(Flachland)으로 만든다고 지적하는바,³¹⁾ 결국 유럽의 민주주의 운동이 만들어 내고 있는 평지 위에서 이루어질 새로운 지배를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니체의 관점은 다음의 구절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31) GD Deutsche 3

‘무리동물’의 유형이 지금 유럽에서 발전하면 할수록 반대 유형과 반대 유형의 덕성들을 원칙적으로, 인위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육성하려는 시도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 민주주의 운동을 이용하는 누군가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 운동을 위한 일종의 목표, 구원, 정당화가 아닌가?³²⁾

그는 “유럽 민주주의의 완성”은 결국 “새롭고 세련된 노예제도의 형성”을 의미하게 될 것이며, 동시에 이를 이용하고 지배할 “카이사르적인 존재”가 나오게 된다고 보았다.³³⁾ 니체에게서 민주주의는 지배하는 것도 지배받는 것도 귀찮게 되어버려 목자를 잃고 방향을 상실한 무리의 문제이다.³⁴⁾ 무리만 존재한다는 것은 총체적인 방향의 결여와 가치의 상실을 의미한다. 이런 면에서 “무리동물이 된 유럽인에게 절대적인 명령자의 출현은” 일종의 “구원”이자 “은혜”이다. 곧 “나폴레옹의 출현이 끼친 영향은 최후의 위대한 증거를 제시했던 것이다.”³⁵⁾ 그리하여 니체가 거리를 두고 있는 ‘위대한 정치’란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고 국민의 안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가의 대외적 활동에 사람들을 몰두하게 만들고 또한 그러한 관심에서 자국의 권력 확장에 열광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니체는 거기에서 점점 더 천박해지는 정신들을 발견하고, 그 위에 서게 될 새로운 ‘지배’를 생각하는 것이다.

VI. 하나의 유럽과 지상의 통치

이러한 대당와의 거리두기 속에서, 앞서 니체가 유럽을 지배하는 새로운 계급을 통해 유럽이 하나의 의지를 획득하려는 결의를 함으로써 “유럽의 소국분립”과 “의지 분열”이 종결될 수 있다고 말할 때, 그는 이 뒤의 것을

32) KSA 12 2[13]

33) 같은 곳.

34) Bernhard Taureck(2008) 201쪽.

35) JGB 199; “사람들이 나폴레옹에게 신세지고 있는 것을 생각해보라: 그것은 금세기의 거의 모든 차원 높은 희망들이다.”(KSA 12 9[44])

‘작은 정치’라고 불렀다. 그리하여 이를 통해 니체는 분열된 유럽에서 한 국가의 대외적인 권력 확장 정치를 의미했던 ‘위대한 정치’를 또한 ‘작은 정치’로 강등시키면서 그로부터 거리를 둔다. 다시 말해 당대의 소위 위대한 정치란 니체에게 작은 정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작은 정치’에 대해 니체는 이미 경멸을 표한 적이 있다.³⁶⁾ 『즐거운 학문』 377절은 유럽인들 가운데 “자신을 실향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사람들”에 대해서 말한다. 이들은 “독일적 정신의 표지”가 되고 있는 “인종적 자기예찬과 무분별”에서 벗어나 인종과 출신에 대해 열려 있는 자들로서, 곧 “**선한 유럽인(gute Europäer)**, 유럽의 상속자, 수천 년에 걸쳐 풍부하고 풍요롭게 축적된 유럽 정신의 자산을 물려받은, 하지만 이와 동시에 엄청난 의무도 물려받은 상속자들”이다. 그들과 함께 니체는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을 갈라놓고 그것 사이의 증오심을 부추김으로써 유지되는 “**작은 정치**”에 대해 분노하면서 이렇게 되묻는다. “그것은 유럽의 소국분립의 영속화를 원해야만 하지 않을까?”

니체는 당시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독립 요구나 민족국가 설립 욕구뿐만 아니라, 유럽 강대국들 사이의 복잡하고 중층적인 동맹관계와 적대관계까지, 즉 당시 유럽에서 일어나는 모든 국가적 단위의 움직임들에 대해 비판적이었는데, 그것은 대내적으로는 대중의 안녕에 호소하여 그들을 선동하고 대외적으로는 군비증강과 이해관계에 따른 동맹과 견제를 추진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과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기 소모적인 활동일 뿐이었으니, 니체는 이렇게 말한다. “유럽의 소국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현재 모든 국가와 ‘제국’이다.” “나는 이러한 모든 국가적인 전쟁들, 새로운 ‘제국’과 그 밖에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을 넘어서 바라본다: 나와 상관있는 것 [...] 그것은 하나의 유럽이다.”³⁷⁾ 그리하여 유럽의 국가들이 분열되어 있음을 통해 오히려 이익을 얻고 유지되는 작은 정치에 대한 경멸과 그에 대비되는 지상의 통치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36) ‘작은 정치(kleine Politik)’라는 말은 출판된 저서에서 3번 등장한다. FW 377; JGB 208; EH Wagner 2.

37) KSA 11 37[9]

지상의 통치(Erdregierung)라는 목적을 위해 유럽으로부터 하나의 통일, 유럽의 정치적이고도 **경제적인** 통일을 이루어내기에 충분히 강한 천재와 의지라는 중대한 힘이 가시화되었을 때, 독일인들은 그들의 ‘해방전쟁’을 통해서 나폴레옹의 존재에 있는 의미와 그 의미가 갖는 기적을 결국 없애버리고 말았다. -이로써 독일인들은 그 후에 일어났던 모든 것, 오늘날의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 즉 지금 존재하는 이러한 **가장 반문화적인** 질병과 비이성에, 유럽을 병들게 한 **국가적 노이로제인** 국가주의에, 유럽의 소국분립과 **작은** 정치의 영구화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들은 유럽에게서 유럽의 의미와 **이성**마저 없애버렸다. [...] 이 막다른 골목에서 나오는 길을 나 외에 누가 알고 있는가? 민족들(Völker)을 다시 **묶는**다는 것은 하나의 과제로서 충분히 위대하지 않은가?³⁸⁾

여기서 니체는 ‘유럽의 통일과 지상의 통치(Erdregierung)’를 ‘유럽의 소국분립과 작은 정치’에 대립시키는데, 이는 앞서 ‘하나의 의지를 가진 유럽이 추구할 위대한 정치로서의 지상의 지배’를 ‘소국분립과 의지분열의 작은 정치’에 대립시킨 것과 동일한 맥락에 놓여 있다.³⁹⁾ 니체는 ‘작은 정치’를 늘 소국분립과 등치시키면서 그와 대비해 반복적으로 “하나의 유럽”을 말하며, 그 하나의 유럽이 수행할 지상의 지배를 요구한다. 그리하여 위대한 정치란 ‘하나의 유럽’이라는 지평 위에서 수행될 ‘지상의 지배’ 혹은 ‘지상의 통치’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⁴⁰⁾

38) EH Wagner 2

39) 이 인용문의 번역에 있어 사소하지 않은 차이 때문에 그에 대한 언급을 해야 하겠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Die Deutschen haben endlich, als ... eine force majeure von Genie und Wille sichtbar wurde, stark genug, aus Europa eine Einheit, eine politische und wirtschaftliche Einheit, zum Zweck der Erdregierung zu schaffen, mit ihren „Freiheits-Kriegen“ Europa um den Sinn, um das Wunder von Sinn in der Existenz Napoleon’s gebracht.” 이를 책세상 판은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유럽의 통일을, 유럽의 정치적이고도 경제적인 통일을 이루어내기에 충분한 천재와 의지라는 막강한 힘이 가시화되었을 때, 독일인들은 세계 지배의 성취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들의 ‘자유전쟁’을 수단으로 마침내는 유럽에서 나폴레옹의 존재가 갖고 있는 의미, 그 기적과도 같은 의미를 결국 없애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독일이 세계 지배라는 목적으로 자유전쟁을 치렀다는 번역은 역사적으로도 문맥적으로도 구문적으로도 의미가 맞지 않는다. 여기서 “stark genug~ zu schaffen”을 함께 번역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여기서 문제되는 대립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덧붙여 Freiheits-Kriegen 또한 문자 그대로 하자면 ‘자유전쟁’이 될 수는 있겠으나, 나폴레옹에 대항하는 전쟁으로서 역사학계에서 통용되는 ‘해방전쟁’이라는 용어가 있으니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런데 이러한 지상의 지배를 탈민족적이고 초국가적인 것으로서 긍정적으로 이해한다 하더라도,⁴¹⁾ 니체의 저러한 말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혼란을 안겨다주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 니체가 한갓 은유로서만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위의 인용문에 나오는 ‘해방전쟁’이란 주지하다시피 독일이 나폴레옹에 맞서 1813년부터 수행한 전쟁을 가리키는데, 프로이센·오스트리아·러시아 연합군은 1813년 라이프치히에서 나폴레옹에게 승리하고, 그 후 1815년에 나폴레옹은 유럽의 무대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니체가 광대한 유럽의 땅을 정복한 나폴레옹이 사라지게 된 것을 아쉬워하는 것을 고려할 때, 소국분립의 작은 정치와 대립되는 위대한 정치란 유럽의 넓은 영토를 통일하여 전지구적으로 군림할 거대한 제국의 건설을 의미하는 것일까? “사람들이 알다시피 나폴레옹은 하나의 유럽을 원했”기 때문이다. “그것도 지상의 지배자로서의 유럽을.”⁴²⁾

40) 고병권은 「그리스 국가」에 등장하는 “정치 영역의 위축”이라는 말을 ‘작은 정치’ 개념과 연결하고 있다. 그러나 저 말은 국가의 기원에 있는 잔인함과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국가에 종속시키고 또한 그럼으로써 문화의 창조에 복무시키도록 했던 그리스 국가의 정치적 충동을 두려워하고 자기의 안녕만을 생각하는 당시의 시대를 일컫는 것이다. 그는 ‘허무주의’가 ‘정치의 죽음’을 의미하며 니체의 근대성에 대한 비판은 ‘정치의 상실’에 대한 비판이라고 해석하는데, 이는 맥락에서 벗어난 이해로 보인다. 고병권(2001) 123-125쪽 참조.

41) 진은영(2008)은 니체를 “반제국주의자인 동시에 탈민족주의의 선구적인 주창자”로 이해하면서, 스미스(John H. Smith)의 해석에 따라 ‘Erd-Herrschaft’는 제국주의적 지배와는 무관한 “초민족적(trans-national) 세계관의 산물”이라고 말한다. 물론 진은영은 스미스와 함께 이것이 유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논의라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42) FW 362 이와 관련된 니체의 조건도 때로는 매우 실제적이다. 그는 당시 전제 정치를 더욱 강화시키던 차르 알렉산드르 3세가 이끄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민중을 대변한다는 의회주의의 “영국적 원리”가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KSA 11 26[336]), 러시아는 “식민지 경영에 나서야 하며 중국과 인도를 차지해야 한다”고 말한다(KSA 11 25[112]). 그리고 유럽이 “좋은 전망으로 지상의 통치를 위한 투쟁에 들어가기 위해” 서는, “영국의 식민지가 필요”하므로 유럽은 영국과 화해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KSA 11 37[9])

VII. 문화적 관점에서의 하나의 유럽

물론 ‘하나의 유럽’은 실제적인 정치적 통일체를 의미하지만, 니체에게 유럽이란 단순히 정치적 통일제국이라는 의미에 머무르는 것이 결코 아니다. 또한 니체에게 나폴레옹이 단순한 정치적 정복자로서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니체가 지향하는 바는 단지 정치적으로 유럽이 하나가 되어 국제적인 권력 정치에서 선두에 서는 것이 아니라 통일된 하나의 유럽이 꽃피울 문화적 위대함이다. 역으로 말하면, 문화적 고양을 위해서 그 토양이 될 유럽이 하나로 통일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앞서 니체가 “선한 유럽인, 유럽의 상속자, 수천 년에 걸쳐 풍부하고 풍요롭게 축적된 유럽 정신의 자산을 물려받은, 하지만 이와 동시에 엄청난 의무도 물려받은 상속자들”을 언급했듯이, 니체에게 하나의 유럽이란 무엇보다 문화적인 창조적 힘을 모으는 지평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우리는 (각주 42번에서처럼) 니체 스스로도 아주 혼란스럽게 기록하고 있는 저러한 말들 이면에는, 항상 문화에 대한 관심이 작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를테면 민주주의를 “잘못된 자들이 우위를 차지하는 형식”⁴³⁾으로 보았던 니체는 때로는 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러시아가 “유럽과 아시아의 지배자가 되어야 한다”고 별스스럼없이 말하기도 했는데, 그와 동시에 유럽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그리스로서의 유럽.” 즉 특히 초기의 로마가 정치적으로는 지배권을 행사하더라도 여전히 그리스 문화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것처럼, 마치 정치적 지배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듯이, “유럽을 문화의—중심으로 파악하기”를 말하는 것이다.⁴⁴⁾ 물론 이러한 태도는 위에서 보듯이 곧 수정되며, “하나의 유럽”으로서 정치적 공동체를 강하게 말하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니체의 관심이 언제나 문화에 놓여 있었다는 점이다.⁴⁵⁾

43) KSA 11 34[146]

44) KSA 11 25[112]

45) 오트만도 위대한 정치가 선한 유럽인을 위한 정치라고 할 때, 우선 그것은 ‘Größe’의 문자적인 의미에서 소국분립에 대립되는 큰 공간성, 곧 초국가성(Übernationalität)으로서의 크기를 의미한다고 이해한다. 이런 면에서 ‘위대한 정치’는 초국가적인 유럽

그리스를 말하며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은 기분”⁴⁶⁾을 느낀다는 헤겔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를 원류로 한 유럽적 문화에 대한 관심은 자주 있어왔으며, ‘유럽’이라는 정체성이 이따금씩 부각되기도 했다. 그리고 당대에 ‘하나의 유럽’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빅토르 위고(Victor Hugo)는 1849년에 파리에서 열린 국제평화회의에서 ‘유럽합중국(*Les Etats-Unis d'Europe*)’이라는 개념을 유럽에서는 처음 사용하였는데, 그는 거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느 날엔가 프랑스, 러시아, 이탈리아, 영국, 독일 그리고 모든 유럽대륙의 국가들이 견고하고 초국가적인 통일체를 이룰 날이 올 것이다. [...] 어느 날엔가 미합중국과 유럽합중국이 대서양을 가로질러 서로 손을 뻗치며 서로를 쳐다보는 때가 올 것이다.”⁴⁷⁾ 그는 이후 밀(John Stuart Mill) 등과 함께 1867년에 ‘평화와 자유를 위한 국제연맹’을 조직하고, 그 연맹의 기관지로서 「유럽합중국」이라는 저널을 발간하기도 했다.⁴⁸⁾ 이러한 빅토르 위고에 대해서 니체는 “모든 비천한 자, 실패한 자, 억압받는 자를 위한 사도의 음성을 지닌, 대중에 아첨하는 자”⁴⁹⁾라고 하며, “자유라는 이름으로 무리-본능에 아름다운 말과 화려한 외투를 걸쳐주었다”⁵⁰⁾고 평가한다.

니체는 당연하게도 민주주의적인 자유와 평등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유럽통합에는 반대했을 것이며, 하나의 유럽이라는 지평 위에 자신이 그리는 새로운 지배구조물을 건축하려 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의 유럽’이라는 말은 기존의 국가를 지양한다는 것이며, 기존의 국가를 지양한다는 것은 그러한 국가가 딛고 서 있던 지반을 지양한다는 것을 의미한

정치를 위한 개념인데,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제국들의 거대함에 맞서는 문화의 크기(위대함)를 지향하며, 그럼으로써 인간 자신의 위대함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Henning Ottmann(1999) 242쪽 아래.

46) G. W. F. Hegel(2008) 221쪽.

47) Victor Hugo, *Oeuvres complètes: Actes et paroles*, 42 Vol. (Paris, 1937), I : 68-69, 노명환(2001) 8쪽에서 재인용.

48) 노명환(2001) 같은 곳. 1차 세계대전 이전의 유럽이념의 발전과 유럽통합에 대한 논의는 이 책 2-11쪽 참조.

49) KSA 11 26[454]

50) KSA 11 34[85]

다는 점이다. 그 기반을 니체는 “왕정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의지분열”이라고 말하며 그것이 현실로서 나타난 것이 소국분립체제라고 보았다.⁵¹⁾ 그래서 그는 “사욕을 선동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민족들의 자기과시를 원칙으로 만들고 거의 의무로까지 만들어버린 유럽 왕가의 저주받을 만한 이해타산 - 정치에 대한 경멸”⁵²⁾을 표하게 되는데, 이러한 의지분열은 위대한 과제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의 평온한 삶과 대중의 안녕이 점점 최고의 가치를 접해가는 상황에서 기인한다. 그리하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새로운 과제를 제출하는 것, 기존의 국가가 지양된 하나의 유럽 공동체가 터할 수 있는 새로운 사상을 제시하는 것이 니체의 과제가 되는데, “어떤 조건 아래서 ‘인간’이라는 식물이 가장 강력하게 높은 곳으로 성장해 올라가는가 하는 문제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에게 [...] 새로운 정치적 권력(Macht)의 출현은 그 권력이 하나의 새로운 사상 위에서 있지 못할 경우 아직은 사건이 아닌 것이다.”⁵³⁾

결국 하나의 유럽은 단순한 공간성의 문제는 아니었다. 즉 정신의 천박함은 단순히 “소국분립의 결과가 아니었다.” 작은 도시국가였던 그리스가 놀라운 문화의 꽃을 피운 것에서 보듯이, “큰 국가 자체가 영혼을 자유롭고 남성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닌 것이다.”⁵⁴⁾ 이런 점에서 니체는 비스마르크⁵⁵⁾와 독일 제국에 이중적인 관심을 가지면서도, 그것이 단순한 정치적

51)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적인 의회제를 통해 국민의 발언권이 커지고 그에 따라 국민의 안녕과 대중들의 안락한 삶이 우선적인 가치가 됨으로써, 유럽의 국가들은 그렇게 자국민의 안녕과 복지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안으로는 선동하고 밖으로는 서로 싸우고 있었다. 다른 한편 그 뒤에서는 유럽 왕가들의 세력 다툼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무런 생산성도 없는, 그저 당시 유럽 정치를 움직이던 여러 왕가들(예를 들어 프로이센의 호엔츨레른 가문, 프랑스의 부르봉 가문,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가문 등)의 이권다툼일 뿐이었다. 이를테면 1871년 프랑스-프로이센 전쟁은 스페인 왕위를 호엔츨레른 가문에 부여하기로 한 것에 대한 프랑스의 반대를 비스마르크가 이용한 것이다 (Mary Fulbrook(2000) 191쪽 아래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각 국가들은 쓸모없는 일로 서로에게 힘을 쏟고 있었다.

52) KSA 13 25[1]

53) KSA 11 34[146]

54) KSA 11 34[114]

55) 니체는 나폴레옹과 함께 비스마르크를 강한 의지를 갖고서 무리 동물로 화한 인간들에게 “명령을 내릴 줄 아는 사람”으로 주목하기도 하고,(KSA 11 26[449]) 또한 비스

통일이었고 새로운 문화적 기반에서 있는 것이 아닌 까닭에 거리를 두게 된다.⁵⁶⁾ 그리고 무엇보다 비스마르크의 독일은 그저 “독일, 모든 것 위의 독일(Deutschland, Deutschland über Alles)”을 부르며 통일된 유럽에 대한 그 어떤 전망도 보여주지 않았던 것이다.⁵⁷⁾

니체가 바라는 것은 유럽 국가들 간의 자기소모적인 힘 싸움이 아니라, 하나로 통일된 유럽에서 수행되어야 할, 새로운 사상에 근거한 새로운 지배였다. 이는 보다 높은 문화의 창조(자)를 위한 것이며, 그런 한에서 ‘하나의 유럽’을 구상할 때에도 그러한 문화적 관점에서 조망하는바, 니체는 ‘유럽이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역사적 징후들, 혹은 미래의 유럽인의 선취를 “나폴레옹, 괴테, 베토벤, 스탕달, 하인리히 하이네, 쇼펜하우어” 그리고 노년기 이전의 “리하르트 바그너”에서 찾고 있다.⁵⁸⁾ 즉 하나로 모아진 의지가 지향해야 할 것은 단지 큰 국가가 아니라 새롭게 문화를 창조해나갈 “보다 높은 유형의 산출”⁵⁹⁾이며, 이를 통해 표현될 위대함은 국가의 막강함이 아니라 문화적 위대함인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를 마치 지상의 신과도 같이 공경해야”⁶⁰⁾ 한다고 말하는 옛 사상을 넘어서야 하며, 그럼으로써 당대

마르크가 독일의 소국분립을 극복하고 하나의 ‘독일 제국’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무언가를 창조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KSA 11 26[402]). 또한 1878년에 비스마르크가 실행한 반사회주의자법을 지지하기도 했다(Renato Cristi(2010) 참조). 그리고 때로는 그를 어떤 측면에서 바그너와 쇼펜하우어와 함께 독일적인 것의 예외로 평가하기도 하며, (M 167) 또한 다음과 같이 언급하기도 한다. “[독일의 철학적 사유의 업적은] 선한 양심으로 이교도 문화를 받아들인 괴테의 예처럼, 혹은 마찬가지로 비스마르크가 선한 양심으로 독일인들 사이에서 실현시킨 마키아벨리즘, 이른바 그의 ‘현실 정치(Realpolitik)’의 예처럼 극히 개인적인 경우이고 민족의 정신에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닐까?”(FW 357) 하지만 비스마르크에 대해 전반적으로는 호의적이지 않았으며 특히 후기로 갈수록 매우 신랄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 56) “독일 제국에 대해 흥미를 가질 수 있는가? 어디에 새로운 사상이 있는가? ... 평화와 방—임, 그것은 경의를 표할만 한 그런 정치가 결코 아니다. 지배하는 것 그리고 최고의 사상으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돕는 것—그것이 내가 독일에 대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KSA 11 26[335])
- 57) 장홍(1994) 31쪽 아래 참조.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독일의 통일을 이룩한 비스마르크에게 유럽이란 단순한 지리적 개념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는 유럽의 통합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으며, 통일로 획득된 독일의 세력과 우위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소위 <현실정치Realpolitik>에 전념했다.”
- 58) JGB 256
- 59) KSA 11 25[211] “보다 높은 유형의 산출을 위한 수단으로서 지상에 대한 지배.”

의 민족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인 분열이 지양된 유럽이라는 지평 위에서 위대한 힘들을 모으기 위한 지배가 수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니체는 “정치적 통일체로서의 유럽”을 구상한 자로서 “나폴레옹”을, 이미 달성된 인간성의 유산 전체를 모아 만드는 “유럽 문화”를 구상한 자로서 “괴테”를 제시하는 것이다.⁶¹⁾

VIII. 결론

이러한 문화적 조망에서 비롯되는 ‘하나의 유럽’에 대한 관점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지속되고 있던 것이었는데, 1879년에 작성되는 글에서 이미 니체는 민족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인 관심이 유럽의 질병이라고 부른다. 거기에서 “우리는 민족들의 테두리를 넘어서 이해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데, 그럼으로써 이들은 “모든 지상의 문화(Erdkultur)를 인도하고 감독한다는 저 위대한 과제가 선한 유럽인의 손에 쥐어질, 아직 여전히 먼 미래의 일들을 준비하는 것이다.”⁶²⁾ 이렇게 문화를 인도하고 감독하는 것이 저 ‘지배’에 대한 고민의 뿌리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⁶³⁾

이러한 고민 가운데, 1884년 초에 완성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4부에서, 니체는 “누가 지상의 지배자가 되어야 하는가?”⁶⁴⁾라고 묻는다. 그리고 유럽이 각축을 벌이는 대외 정치로 몸살을 앓고 있을 때, 니체는 동일한 용어(grosse Politik)로써 새로운 지배구조물을 구상하게 된다. 니체가 유럽이라는 지평에서 이루어지는 초국가적인 범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grosse Politik’이라는 말을 고집했는지, 혹은 수천 년을 내다보는 과제의 장대함 때문에 고집했는지, 혹은 그 단어 자체가 주는 울림을 놓을 수가 없

60) G. W. F. Hegel(1989) 428쪽 아래.

61) KSA 13 15[68]

62) MA II ii 87

63) Julian Young(2006)은 니체는 말년까지 유럽의 문화가 세계 문화가 되기를 바랐다고 해석한다(214쪽). 하지만 니체의 이러한 측면을 너무 쉽게 범세계주의(cosmopolitanism)와 동일시하기도 한다.

64) Z, KSA 4 398

어서 고집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다. 분명한 것은 니체가 국가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던 당대 유럽의 국가 간 대외 정치를 지시할 때 사용되던 이 용어를, 자신이 의미하는 다른 정치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의미를 바꾸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말년에 그는 노골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된다.

현재 ‘위대한 정치’라는 <이름>에 권리 요구를 하는, 민족이기주의 및 종족이기주의로의 저주받을만한 선동<보다> 더 깊이 내 과제의 숭고한 감각에 불쾌감을 일으키는 것을 나는 알지 못한다.⁶⁵⁾

비슷한 시기에 니체는 브란테스(Georg Brandes)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는 위대한 정치에 진입하게 되었다”고 쓰고 있다.⁶⁶⁾ 거기서 그는 역사를 돌로 나눌 사건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서,⁶⁷⁾ 세달 안에 “안티크리스트” 수고본의 제작을 요청할 것이며, 그에게는 덴마크어를 맡아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유럽의 모든 주요 언어로 번역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럼으로써 ‘하나의 유럽’이라는 지평 위에서 수행될 ‘지상의 통치’로서 위대한 정치를 기대하는 것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위대한 정치’라는 용어에 대한 니체의 사용은 두 가지 선이 있으며, 니체는 위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의 선을 상대화하면서 자신은 다른 것을 지향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그것은 다시 반복하자면, 유럽이라는 지평 위에서 수행될, 기독교적 가치와는 다른 새로운 사상에 근거한 새로운 지배의 문제이다.

그리고 이것은 당대 사회에 대한 니체 자신의 현실적인 조망 속에서 나온 것이다. 즉 위대한 정치를, 비록 그러한 성격이 전혀 없지 않다 할지라도, 역사적 장소(topos)를 떠나 단순히 철학적으로만 고려된 아토피아(atopia)적 구상으로서만 이해하거나,⁶⁸⁾ 구체적인 현실에 근거를 두고 확정

65) KSA 13 25[6]

66) KSB 8 500-502

67) 다음의 유고 또한 참조할 수 있다. “이따금 나는 내 손이 인류의 운명을 쥐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인류의 운명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두 부분으로 나눈다. 내 이전과 내 이후로...”(KSA 13 25[5])

68) Alex McIntyre(1997) 11쪽 아래, 80쪽 아래 참조. 맥킨타이어는 리퍼르(Paul

되어야 할 것이 아닌, 먼 “유토피아”⁶⁹⁾를 구상하는 것으로서만 보아서는 안 된다. 니체는 자신의 철학적 기획에 입각해서, 또한 당시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조망하면서, 그 위에서 자신의 위대한 정치를 기획했던 것이다. 이런 측면이 거의 간과되어 왔으며, 그런 한에서 위대한 정치는 자주 다른 문맥 없이 단순히 철학적이고 이념적인 지평에서만 설명되어 왔다.

그 현실적 측면에서 고찰하자면, 위대한 정치는 세계의 권력 충돌과 전쟁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던 당시 상황이 ‘하나의 유럽’을 고민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미 나폴레옹, 괴테 등과 같이 “유럽이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가장 명백한 징조들”이 있으며, 그런 한에서 유럽 국가 간의 상호 분리가 “과도기적 정치”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⁷⁰⁾ 그리고 당대 민주주의의 운동 및 그것이 표현되고 있는 정치가 사람들을 평균화시킴으로써 그 평평한 땅에 대한 새로운 지배의 확립이 필연적인 것이 되었다는 점 등으로부터 요청된다. 위대한 정치는 이러한 조망에서 출발하였으며, 그런 한에서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의 큰 축을 형성하는 ‘유럽’에 대한 니체의 고찰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면에서 본고는 위대한 정치와 ‘하나의 유럽’이라는 말의 뿌리 깊은 연결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 보이려 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위대한 정치를

Ricoeur가 수행한 정체(*le politique*; polity)와 정치(*la politique*; politics)의 구분을 이용한다. ‘정체’란 그 안에서 “경험적 정치가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합리성의 이상적 공간”을 의미하는데, 마치 트라쉬마코스가 강자의 이해가 반영된 정의의 현실성을 아무리 강하게 말하더라도 플라톤의 정의 관념이 손상되지 않듯이, 니체는 그러한 ‘정체’를 재건한다는 것이다. 위대한 정치는 이러한 ‘정체’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또한 이는 단단한 지반이 아니라 생성의 유희와 장소의 없음(a-topia)에 놓여 있는 것이다. 물론 매력적이고 유용한 이해방식이지만, 매킨타이어는 더 나아가 정체가 정치적 영역과는 엄격히 구분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플라톤과 같이 니체에게 있어 정치는 정체보다 덜 실재적인, 곧 이차적인 실재성을 갖는 영역이며, 정체에서의 생각이 정치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적인 정치의 실현을 위해 쉬라쿠사이(Syrakousai)로 갔었던 플라톤보다 결코 현실적 영향력에 대한 욕구가 작지 않았던 니체는 자신이 구상한 그림에 취해서 단지 생각으로 거기에 만족했던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주 현실적으로 발언하고 또한 그것의 실현을 기대했다. 그리고 그런 한에서 ‘위대한 정치’를 단지 철학적 지평에서만 고려하는 것은 정당한 이해라고 할 수 없다.

69) Henning Ottmann(1999) 243쪽.

70) JGB 256

구성하는 하나의 축인 한에서, 물론 이상의 논의는 위대한 정치의 전모를 드러내는 것은 아직 아니다. 앞에서 본고는 위대한 정치의 두 축으로 ‘하나의 유럽’과 ‘위계질서’로 들었다. 즉, 앞서 언급했듯이, 위대한 정치가 하나의 유럽에서 수행될 지상의 통치라고 할 때, “위계질서는 지상의 통치라는 체계 안에서 철저히 실행된다.”⁷¹⁾ 니체가 줄곧 견지하는바, “높은 문화는 일종의 피라미드”⁷²⁾이고, 그렇게 니체가 구상하는 지배구조물이 세워질 터가 ‘하나의 유럽’이며, 그 설계도가, 그의 생리학적 통찰과 긴밀히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위계질서’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지면의 한계로 다만 그 하나의 축에 집중하였으며, 그 나머지 측면과 의의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보다 깊이 논의하려 한다.

투 고 일: 2013. 04. 11.
심사완료일: 2013. 04. 30.
게재확정일: 2013. 05. 01.

정지훈
서울대학교

71) KSA 11 35[73]
72) AC 57

참고문헌

일차문헌

Nietzsche, Friedrich, *Sämtliche Werke: Kritische Studienausgabe in 15 Bänden*, (=KSA), Giorgio Colli, Mazzino Montinari (eds.), München: Deutscher Taschenbuch Verlag;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9.

_____, *Sämtliche Briefe : Kritische Studienausgabe in 8 Bänden*, (=KSB), Giorgio Colli, Mazzino Montinari (eds.), München: Deutscher Taschenbuch Verlag;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3.

-약어

- AC = Der Antichrist ; 안티크리스트
 EH = Ecce homo ; 이 사람을 보라
 FW = Die fröhliche Wissenschaft ; 즐거운 학문
 GD = Götzen-Dämmerung ; 우상의 황혼
 GM = Zur Genealogie der Moral ; 도덕의 계보
 JGB = Jenseits von Gut und Böse ; 선악의 저편
 M = Morgenröthe ; 아침놀
 MA = Menschliches, Allzumenschliches ;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Z = Also sprach Zarathustra ;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번역본

Nietzsche, Friedrich (2000~), 『니체 전집』, 책세상.

이차문헌

- 고병권, 『니체, 천 개의 눈 천 개의 길』, 서울: 소명출판, 2001.
- 김정현, 『니체, 생명과 치유의 철학』, 서울: 책세상, 2006.
- 김진석, 「‘위대한 정치’는 아직도 가능한가?」, 『니체연구』 제11집, 한국니체학회, 2007.
- _____, 『니체는 왜 민주주의에 반대했는가』, 서울: 개마고원, 2009.
- 노명환, 『역사와 문화의 차원에서 본 유럽통합의 제문제』,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1.
- 백승영, 『니체: 건강한 삶을 위한 긍정의 철학을 기획하다』, 파주: 한길사, 2011.
- 이상엽, 「니체와 ‘위대한 정치」, 『니체연구』 제14집, 한국니체학회, 2008.
- 임건태, 「주권적 개인들의 공동체를 향하여—니체의 ‘위대한 정치’의 현재적 의의」, 『니체연구』 제18집, 한국니체학회, 2010.
- 장홍, 『유럽통합의 역사와 현실』, 서울: 고려원, 1994.
- 전성택, 「니체의 ‘위대한 정치’와 삶의 예술」,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제13집,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2.
- 정낙림, 「니체의 민주주의 비판」, 『철학연구』 제101집, 대한철학회, 2007.
- 진은영, 「탈민족시대의 국가, 민족 정체성에 대한 고찰—‘민족국가(Nationalstaat)’에 대한 니체의 견해를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제19권 2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8.
- 황훈, 「니체의 탈근대 정치와 위대한 정치」,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Ansell-Pearson, Keith, *An introduction to Nietzsche as political thinker: the perfect nihilis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 Appel, Fredrick, *Nietzsche contra democracy*,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9.
- Bergmann, Peter, *Nietzsche, “the last antipolitical German”*,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7.

- Brobjer, Thomas, “Critical Aspect of Nietzsche’s relation to Politics and Democracy”, in: Herman W. Siemens, Vasti Roodt (eds.), *Nietzsche, Power and Politics*,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8.
- Cristi, Renato, “Nietzsche on Authority and the State”, in: *ANIMUS* 14, 2010 (<http://www2.swgc.mun.ca/animus>)
- Fulbrook, Mary, 『분열과 통일의 독일사』, 김학이 옮김, 서울 : 개마고원, 2000.
- Hegel, Georg Wilhelm Friedrich, 『법철학 II』, 임석진 옮김, 서울: 지식산업사, 1989.
- _____, 『역사철학강의』, 권기철 옮김, 서울: 동서문화사, 2008.
- Kaufmann, Walter, *Nietzsche: philosopher, psychologist, antichrist* (4th.),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4.
- Lukács, Georg, *Die Zerstörung der Vernunft 2*, Darmstadt: Luchterhand, 1983.
- McIntyre, Alex, *The sovereignty of joy : Nietzsche’s vision of grand politics*,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97.
- Ottmann, Henning, *Philosophie und Politik bei Nietzsche* (2nd.),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9.
- Siemens, Herman, “Yes, No, Maybe So... Nietzsche’s Equivocations on the Relation between Democracy and ‘Grosse Politik’”, in: *Nietzsche, Power and Politics*, 2008.
- Spinks, Lee, *Friedrich Nietzsche*,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03.
- Taureck, Bernhard, “Nietzsche’s Reasoning against Democracy: Why He Uses the Social Herd Metaphor and Why He fails”, in: *Nietzsche, Power and Politics*, 2008.
- Young, Julian, *Nietzsche’s philosophy of religion*, Cambridge, UK;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ABSTRACT

Nietzsche's Great Politics and One Europe

Jeong, Ji-Hun

This paper aims to demonstrate that the expression 'One Europe' is an important pillar in Nietzsche's 'great politics'. The expression indicates that the concept of 'great politics' was formed in the concrete context of contemporary situations. However, 'great politics' has been explained simply from philosophical and abstract perspectives, often without considering the concrete context. In this respect, this paper tries to demonstrate the deep involvement of 'One Europe' with 'great politics' by tracing Nietzsche's texts, including letters and posthumous works, not only published books. What I will clarify from this examination is that through 'great politics', Nietzsche wants to build a new ruling-structure (*Herrschaftsgebilde*), and One Europe is the setting for this proposed structure of 'great politics' to preside above all in a cultural sense.

Keywords: Nietzsche, great politics, One Europe, Herrschaftsgebilde